

불신시대

1

9.28수복 전야, 진영(眞英)의 남편은 폭사했다.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도로(京仁道路)에서 본 인민군의 임종 이야기를 했다. 아직도 나 이 어린 소년이었던다는 것이다.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떼들이 어귀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. 소년병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. 그것을 본 행인 한 사람이 노상에 골려 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려 짜게서 그 소년에 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.

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 시간 후에 폭사하고 만 것이다.

남편을 잃은 진영은 1.4후퇴 때 세 살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. 그러나 안양에 이르기에도



박경리(朴暎利)는 1926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진주여고를 졸업했다. 1955년 단편 「계산」과 1956년 「후후백백」이 『현대문학』에 발표되어 등단했다. 주요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및 한국의 근현대사를 4대에 걸친 한 양반 가문의 몰락과 전이과정 등을 통해 재조명한 대하소설 『토지』, 부정과 위선, 허위로 가득 찬 현실을 비판적으로 규명한 「불신시대」, 『표류도』 『김약국의 딸들』 『시장과 전장』 『파시』 등이 있다.

불신시대

1

9·28수복 전야, 진영(眞英)의 남편은 폭사했다.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도로(京仁道路)에서 본 인민군의 임종 이야기를 했다. 아직도 나 이 어린 소년이었던다는 것이다.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떼들이 아귀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. 소년병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. 그것을 본 행인 한 사람이 노상에 골려 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려 짜게서 그 소년에 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.

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 시간 후에 폭사하고 만 것이다.

남편을 잃은 진영은 1·4후퇴 때 세 살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. 그러나 안양에 이르기기도



박경리(朴景利)는 1926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진주여고를 졸업했다. 1955년 단편 「계산」과 1956년 「후후백백」이 『현대문학』에 발표되어 등단했다. 주요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및 한국의 근현대사를 4대에 걸친 한 양반 가문의 몰락과 전이과정 등을 통해 재조명한 대하소설 『토지』, 부정과 위선, 허위로 가득 찬 현실을 비판적으로 규명한 「불신시대」, 『표류도』 『김약국의 딸들』 『시장과 전장』 『파시』 등이 있다.